

2024년 3월 14일(목)

13:3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쇠구슬 새총으로 새 연쇄 학살...동물단체, “구속수사해야”

경기도 일대 차량 타고 다니며 범행
학대, 도살 과정 SNS에 그대로 올려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일당이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한국 거주 중인 외국인 A씨와 B씨는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 서식하는 새들을 잡아 불법 도살, 식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해외 SNS 앱 Kuaishou에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게시하였고, 이것을 본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하였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에 따르면, 이들에게 죽어간 새는 수 십 마리에 달하여 셀 수 없으며, 피해 동물은 새 외에도 토끼, 자라 등의 야생동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는 새총 외에도 불법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까지 게시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쇠구슬 새총이 재물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구속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현재 수원서부경찰서 강력5팀에서 수사 중이다.

KARA

쇠구슬 새총으로 동물을 학살해 온 학대자들



KARA

차를 타고다니며 새들을 죽이고 있는 학대자



동물권행동 **카라**

KARA

학대자의 쇠구슬 새총에 맞아 추락하는 새

国外视频禁止模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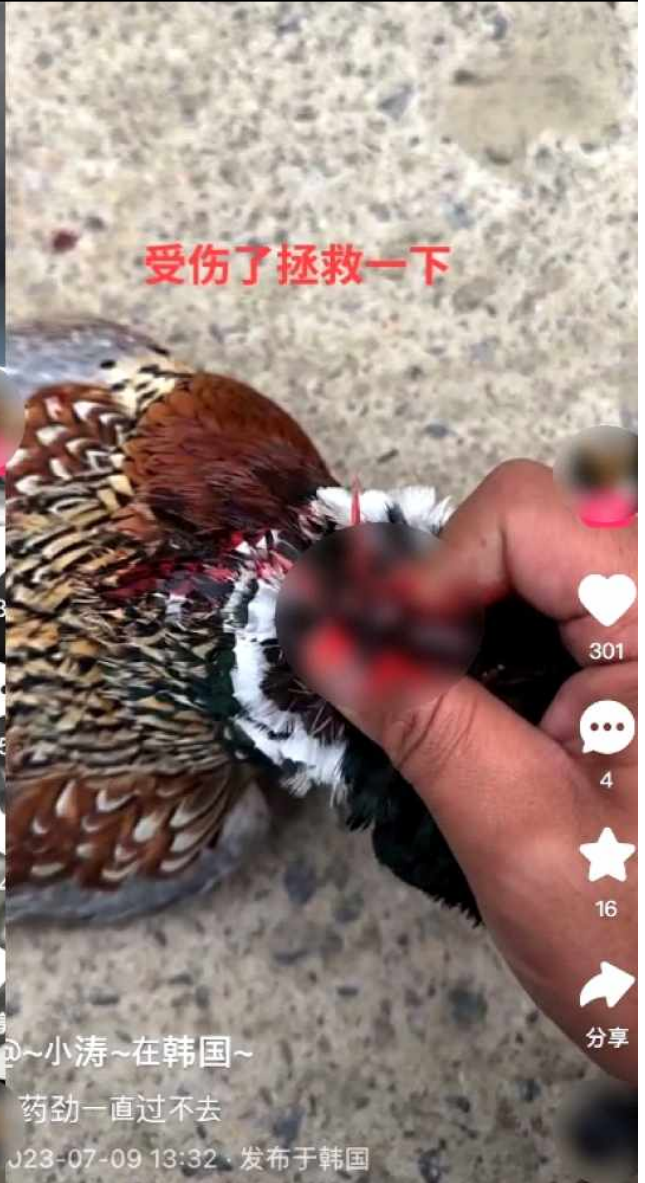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KARA

죽인 새들을 무단 포획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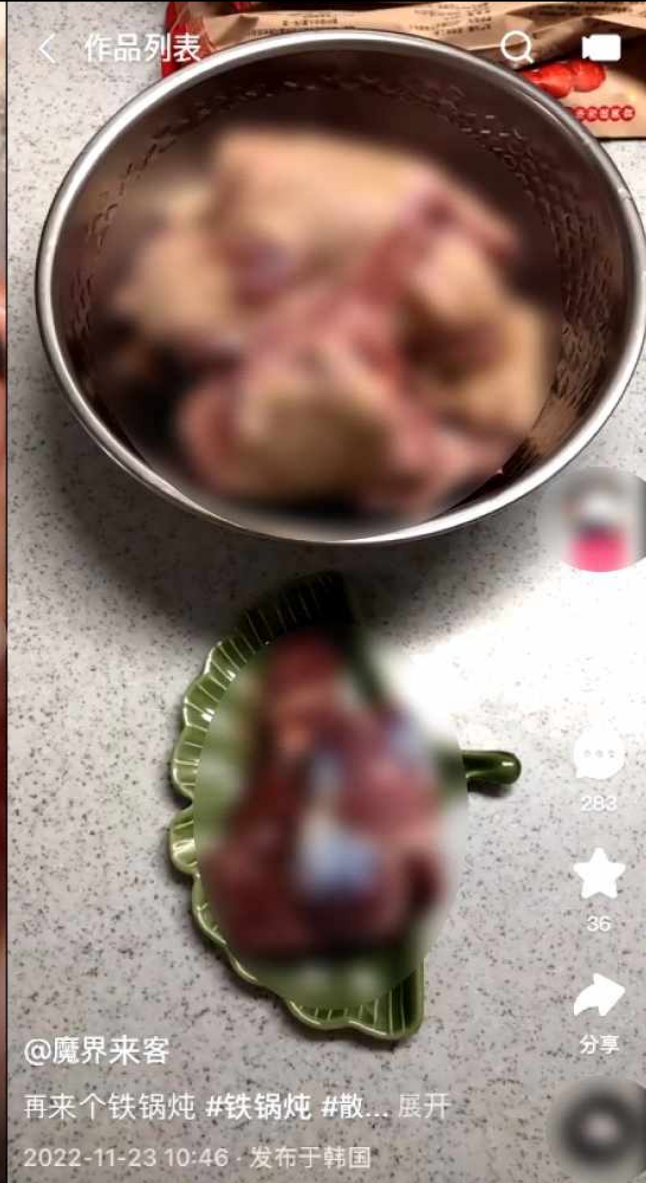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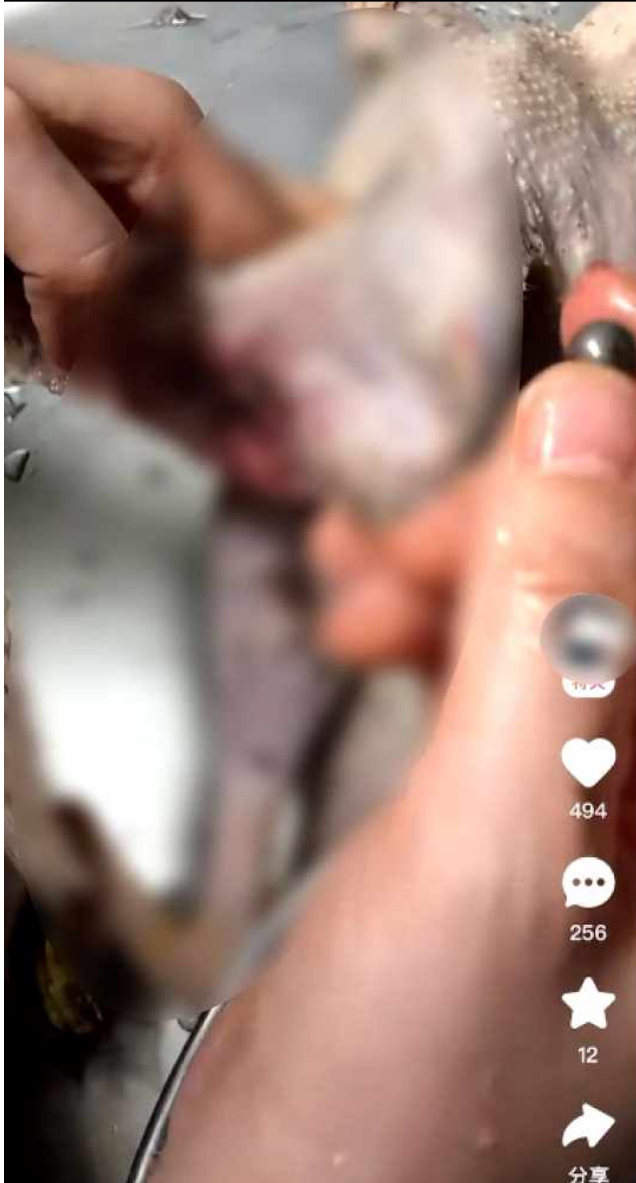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KARA

새총으로 죽인 동물을 불법도살 식용한 학대자



동물권행동 **카라**

KARA

고발 이후 지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HDR



동물권행동 **카라**

KARA

석궁과 불법개조 총기까지 소지한 학대자들



魔界来客

去水单玩具 #军迷爱好者 #... 展开

2023-06-08 13:20 · 发布于韩国



204



4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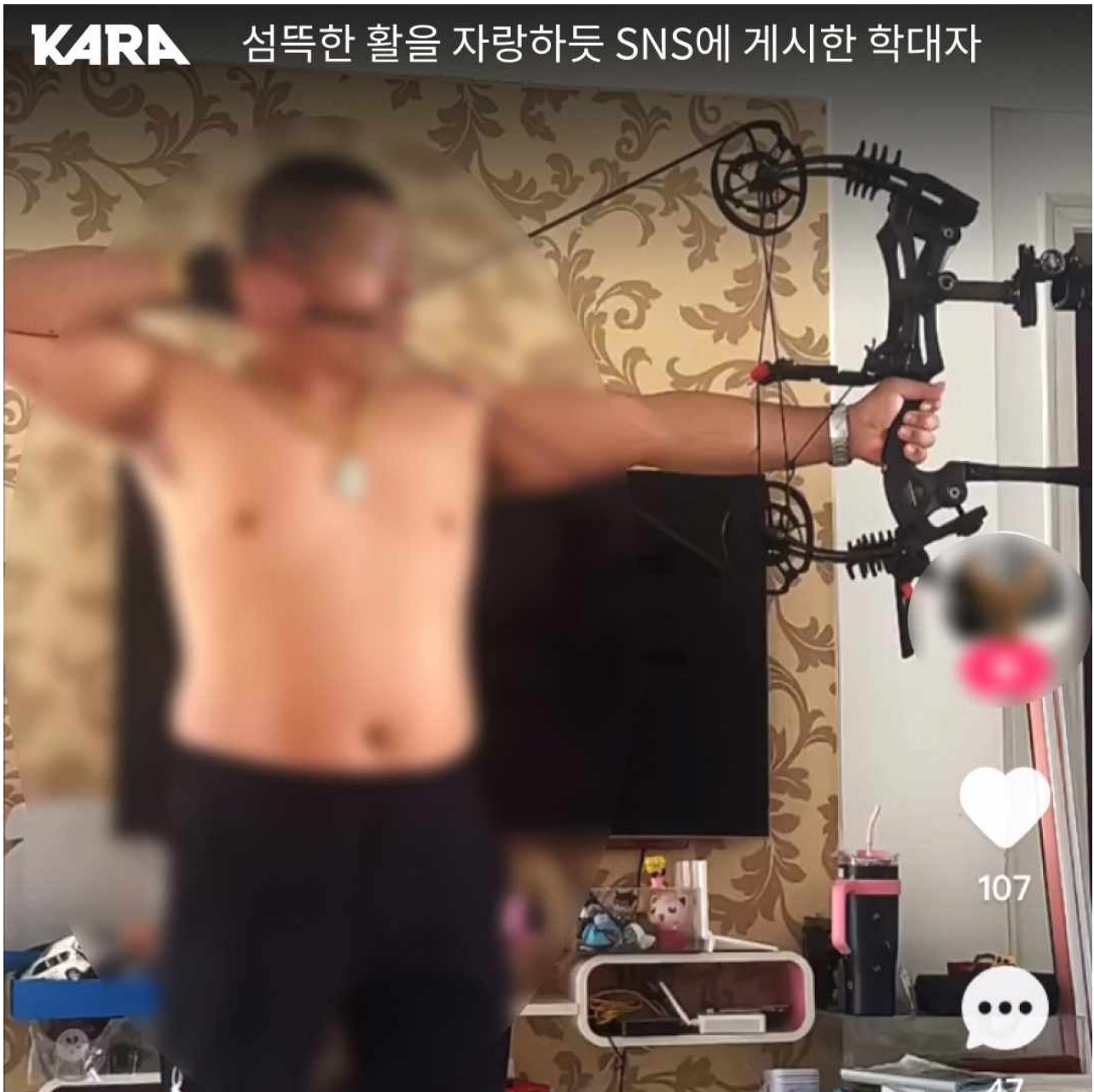


分享

동물권행동 **카라**

KARA

섬뜩한 활을 자랑하듯 SNS에 게시한 학대자



동물권행동 **카라**